

복음, 최고의 복지 (막 2:1-12)

일상 나눔 장애인을 만난 경험이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나누어 보세요.

찬송 하기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본문 읽기 마가복음 2:1-12

‘장애인 복지천국을 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재활센터와 훌륭한 복지시설을 소개하면서, 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이 없는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지천국을 만들어달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복지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복지천국으로 보내달라!’는 사람들에게 ‘진짜 천국을 가자’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1-2절). 예수님께서서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도(복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선지자에게 복지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웃사랑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장애인은 복음의 사각지대로 밀려나있습니다. 왜 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지 못하고 장애인은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중풍병, 오늘날로 치면 뇌신경 계통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 예수님께 나오는데도 최소한 네 사람 이상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병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외로움과 불편, 통증이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장애 당사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대신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픔이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은 예수 믿을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여기고, 단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동정과 긍휼의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요, 핍박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제공해야 할 최고의 복지는 복음입니다. 교회가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장애인에게는 당연히 복지를 제공해야겠지만, 교회의 장애인에게는 복지보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만난 장애인의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신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중풍병을 고치시기 전에 영혼의 문제를 먼저 다루십니다(5절). 병을 고쳐달라고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죄 용서를 선포하신 이 장면은 어색하고도 이상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십니다(10절). 사람들은 치료자 예수를 주목하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의 문제가 먼저 그리고 육신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먼저 그리고 복지입니다. 구원은 일시적인 병 고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때, 여러 장애물을 만났습니다(4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인의 장막을 넘고, 지붕을 들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을 내어 친구를 달아 내립니다. 장애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에도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물리적 장애물의 장벽도 높지만, 보이지 않는 장애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상인 중심의 장애 교회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복음의 사각지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서문교회는 그동안 발달장애인에 복음을 나누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발달장애를 넘어서 다른 장애영역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 가운데 장애인을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인의 장벽을 뛰어넘고 지붕의 뜯어내며 마침내 그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장애인을 둘러업고 나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주일에 이 한 단어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나눔 포인트

1.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으며(1장 21절-2장 1절),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2절)

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2. 중풍병자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며(5절), 연약함의 신비란 어떤 의미입니까?(고후 12:8-10)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 고후 12장)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3.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왜 나아갔으며, 그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2-4절)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4.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4.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먼저 고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5,9-10절)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함심 기도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 / 후원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 주기도문